

유쾌한 팝아트 세계로 초대합니다



아트놈 작 '아트요가'



신세계백화점 1층 중앙동로 천정에 설치된 대형 작품 '하트도그'

아트놈 '해피 파라다이스'전
5월 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장서희 '무등산 캐릭터'전
이달 23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유쾌한 팝 아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팝아트 전시회가 마련된다. 편하게 다가오는 캐릭터들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휴대폰 갤러시와 콜레보레이션 등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의 '아트놈(ART-NOM)'과 지역의 대표 자산 무등산을 소재로 작업하는 장서희 작가의 초대전이 한창 진행중이다.

아트놈의 전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해피 파라다이스(HAPPY PARADISE)'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캐릭터 '아트놈'을 비롯해 토끼 탈을 쓴 '가지(GAZI)', 귀여운 강아지 '모타루(MOTARU)' 등 다양한 캐릭터를 회화, 조각, 설치 등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백화점 1층 중앙동로 천정에 설치된 대형 작품 '하트도그(Heart Dog)'는 관람객들의 사진 스폿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스로를 '재미주의 작가(Funnism Artist)'라 칭하며 관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놈은 전공인 한국화와 캐릭터 디자인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 '모란도', '십장생도', '꺼지 호랑이' 등 한국 전통민화 속 아이코닉을 해학적이고 정겨운 이미지로 재해석해 표현해낸 게 특징이다.



장서희 작 '언제 철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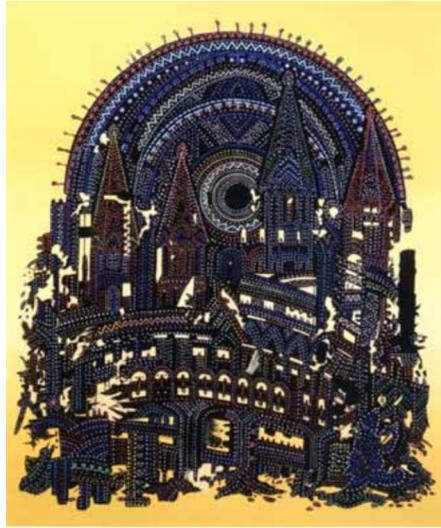
작가는 ZIPPO 라이터, 카프리 맥주, 아디다스 아디제로2, 삼성 갤럭시 노트 등 다양한 콜레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문의 062-360-1271.

최근 무등산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화제가 된 가운데 무등산을 소재로 한 캐릭터 작업을 진행해온 장서희 작가는 '하이브리드 그래픽스-무등산 캐릭터'전을 열고 있다. 23일까지 광주시 북구청 갤러리.

장 작가는 지난해 광주와 무등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이야기에 상상력을 입혀 캐릭터 '무등산 에비뉴'를 탄생시켰다. 야구와 수박을 좋아하는 무등산 호랑

이 '무등산 범이', 까칠한 무등산 락고양이 '무진주', 무등산 토끼등과 서석대에 서 착안한 무등산 힐링토끼 '버니무토', 김덕령 장군이 무등산에서 무술을 연마할 때 함께했던 '백마' 의령 등이 주인공이다. 장작가는 캐릭터들을 주인공 삼아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잠미처럼' '덕령이가 그리울 때 취가정에서'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영상 트레일러도 함께 상영한다. 트레일러는 유튜브(MudeungsanAvenue)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434-53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리노 아리미즈 작 '노스텔지어 2'



이규용 작 '立石'

작가 100여명 참여...광주-다가고시마 교류전

1991년 시작...25번째 전시회

20~26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광주와 일본 가고시마 작가들은 지난 1991년부터 교류전을 시작했다. 그해 가고시마에서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15명과 가고시마 장원회 회원 25명이 참여한 전시가 그 출발이었다. 이듬해 광주 남봉갤러리에서 다시 전시가 열렸고 매해 번갈아가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소박한 교류전에서 시작한 전시는 27년의 세월을 지나며 100여명이 참여하는 메타급 전시회로 성장했고 민간 문화예술교류 행사로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사)광주·전남발전협회(회장 박재순)와 일한(가고시마·광주·전남) 교류미술전 실행위원회(대표 쓰루다 다다시)가 주최하는 한일(광주·전남-가고시마) 미술교류전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이번 교류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1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12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일본에서는 수묵화 서양화, 공예, 사진, 서도 등 7개 분야에서 31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며 특히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본화와 화지(和紙)화 등도 만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 작가로는 광주 전남에서는 한국화의 김선영·김은자·김재일, 박홍수, 이규용·문인화의 박태후·이부재·김선희, 서양화의 김미숙·김영태·김영화·김일해·김종일·노의웅·문정호·민경철·신수정·이영식·이혜경, 수채화의 고현주·김효삼 작가 등이 참여했다. 또 공예의 김미선·오석심 작가, 서예의 강수남·김명석 작가, 사진의 강창원·김도일 작가 등도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 일본작가 12명은 2박3일간 광주에 머물며 지역의 다양한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5시 다. 문의 062-233-19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식으로 만나는 인문학

BPW '무등클럽' 강좌...19일~5월 23일 남구평생학습관

'음식으로 만나는 인문학.'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무등클럽(회장 이영오)이 '음식 인문학의 향연'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5월 23일(오후 2시)까지 12회로 진행되는 강좌는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획으로 광주남구평생학습관 등에서 열린다.

19일 개강식과 특강에서는 김재규 해리터치 소싸이어티 재단 대표가 '인문학으로 읽는 식탁 위 예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26일에는 심리학자이자 영화평론가인 심영섭 교수(대구 사이버대 교수)가 '달

콤한 악마가 내 안에 들어왔다'를 주제로 음식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이기중 전남대 인문학교수 '아시아의 누들로드' (5월3일)를 주제로, '담양댁의 열두살 살림'을 쓴 박지현 작가가 '살림의 인문학& 음식 글쓰기'(5월10일)를 주제로 강의한다

그밖에 '미식의 전라도 맛 해설' (손길선 싱크넷 대표), '음식과 언어'(조현주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 등의 강좌가 이어지며 패션디자이너 범영숙씨 등 무등클럽 회원들이 패션 어드바이저 및 마케팅, 패션아트 트렌드 등 분야별 멘토링 봉사도 진행한다.



심영섭 교수

박지현 작가

현장 답사와 함께하는 강좌도 준비돼 있다. 비움박물관을 견학하고 이영화 박물관장이 '엄마의 부엌'(4월 27일) 강의를 진행하며 남구 세계김치연구소에서는 박채린 책임연구원이 '김치의 인문적 이해'(5월 24일)를 주제로 강의한다.

마지막 강의(5월25일)는 광주 동명동의 스타쉐프 테리킴(RED TIE 대표)과 함께하는 쿠킹 콘서트다. 무료 참여. 문의 062-607-2434. 010-7550-24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63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이 큰잔치!



2018. 4.19 목 - 5.29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기간 2018. 5.14(월) - 5.16(수)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9일(목)-5월 29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의장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8년 4월 16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예정)

개인: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창사66주년